

		번호: PO-EP-025			
제 목	40, 50대 남성근로자의 골다공증 유병실태와 위험요인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Osteoporosis for Male Workers in the Ages of 40's and 50's				
저 자 및 소 속	손은성, 김수근, 장윤균, 서현주, 박일근 방사선보건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Eunsung Son, Sookeun Kim, Yunkyun Jang, Hyunju Seo, Illkeun Park Radiation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분 야	역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식	포스터
<p>목적: 최근 국내에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규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인 남성 골다공증의 역학과 병인 및 위험인자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40, 50대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유병률을 파악하고, 골다공증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건강을 증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p> <p>방법: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골밀도 측정을 실시한 40, 50대 남성 직원 2,073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임상검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일반적 특성(연령, 동거유무, 최종학력, 체중, 신장) 5문항, 골다공증 관련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 3문항, 인체계측(골밀도,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BMI) 4항목으로 총 12항목으로 구성하였다.</p> <p>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밀도는 '정상' 75.3%, '골감소증' 21.9%, '골다공증' 2.8% 이었다. χ^2-test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결과에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족과 동거하지 않을수록, 체중이 감소 할수록, 신장이 적을수록 골다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생활습관과 골밀도의 관계를 보면 흡연을 할수록, 신체활동이 주당 2일 이하일수록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증가하였다. 인체계측과 골밀도의 관계는 복부지방률이 정상일수록, BMI가 작을수록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만과 골밀도의 관계는 정상 체중군이 비만체중군보다 골다공증이 높게 나타나, 체중이 적은 여성보다 체중이 많은 여성이 골밀도를 더 잘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골밀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연령)과 생활습관(흡연, 신체활동 빈도), 인체계측(BMI)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골밀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4개 요인이었으며 종속변수인 골밀도(Y)에 대한 독립변수(x_i)의 관계는 $Y = -1.968 + 0.184(\text{BMI}) - 0.058(\text{연령}) + 0.079(\text{신체활동 빈도}) - 0.121(\text{흡연})$이었다($P < .000$). 선정된 4개 요인의 골밀도에 대한 총 설명력은 18.2%였다. 즉, BMI, 신체활동 빈도가 감소할수록 골다공증이 높아지고, 연령, 흡연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BMI가 골밀도에 미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연령, 신체활동 빈도, 흡연의 순으로 나타났다. <p>결론: 본 연구의 결과 40, 50대 직장 남성근로자들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높은 편이며, 골밀도는 BMI, 연령, 신체활동 빈도, 흡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 50대 직장 남성근로자의 금연과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p>					